

#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채경희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Jangmadang Generation's Consciousness in North Korea

Kyung-Hee Chae

Dept. of Christian Edu, Chon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장마당세대가 많은 사회학적 범주들인 계급, 학생, 민족, 젠더 등을 넘어서 실제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세대의 정치 의식, 교육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에서 장마당세대의 주요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와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와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장마당세대의 교육의식과 준법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당세대는 객관적 세대위치로서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과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기성세대와 다른 장마당세대의 세대위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성세대와 비해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마당세대는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비해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듯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의식을 갖는 집단으로 하나의 세대로 구성될 가능성을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poses a question on whether the Jangmadang Generation, which has been the focus of the sociological interest, can form an actual generation by transcending the social classes, status of students, ethnicity, and gender, etc.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uthor compared the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in terms of politics, education, society, compliance with law, and education with their preceding generation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gathered from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defected within the past five years over the perio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6.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using SPSS 20.0, in order to show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perform frequency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in politics, society, compliance, and education was lower, while the economic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As their objective generational status, the Jangmadang Generation had experienced the 'March of Ordeal' and 'Collapse of Public Education' while they were still teenagers. Such a difference in their generational statu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different consciousness as a generation compared to the earlier generations. Compared to the earlier generations who received 'proper public education,' the Jangmadang Generation, who did not receive 'decent public education' shows a generally lower level of consciousness compared to the earlier generations. As such, the Jangmadang Generation has the potential to form a separate generation with a different generation consciousness from that of earlier generations.

**Keywords** : Jangmadang Generation's, Consciousness, North Korea, Characteristics, North Korean defectors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e(ChonShin Univ.)

Tel: +82-2-3479-0534 email: khchae@chongshin.ac.kr

Received October 22, 2018

Revised (1st November 28, 2018, 2nd January 3, 2019)

Accepted January 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19

## 1. 서론

북한 당국은 해방 이후 7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신구세대의 교체가 진행되어 새로운 세대가 김정은 정권과 함께 혁명의 위업을 계승해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 이러한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세대가 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에 그들에게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세대가 김정은 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른바 ‘새 세대’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후반 사이에 태어나 북한 최대의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는 북한 사회에서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은 곧 북한사회의 특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같이 전체 주민을 강제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 국가에서 세대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의 주장대로 혁명의 3·4세대는 청소년기에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이나 변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로서 기성세대가 되어 40대와 50대를 형성하고 있다[2].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사회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청소년기에 김정은 정권도 인정할 유례없이 엄혹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경험하였으며[1], 특히 북한당국이 수십 년 동안 자랑해온 무료교육의 실질적인 붕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는 국가의 물질적·물리적 통제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에 당과 국가의 힘을 항상 느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11년간의 무상 공교육의 혜택을 누렸다[3]. 기성세대가 성장하여서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정해진 배급을 받았으며 국가에 의지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에 반하여 국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는 무엇 하나 보장받을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버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4].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의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

으며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장마당으로 내몰린 세대에게 ‘장마당세대’라는 명칭을 붙였다[5]. 또한 북한의 정치적 자유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혁의 세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6]. 기존 연구들이 ‘장마당세대’, ‘청년세대’, ‘시장세대’ 등의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면서 북한의 이른바 ‘새 세대’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한 것은 북한의 청년세대를 사회·역사적인 동력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장마당세대가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공통으로 경험했다는 객관적 세대위치[7]에 주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과 그로 인한 ‘장마당경험’ 외에 ‘공교육의 붕괴’라는 사회역사적인 사건에 장마당세대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세대위치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역사적 사건을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의 세대의식[8]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장마당세대가 기성세대와 얼마나 세대 간 의식 차이를 가지는지와 세대 내 하위집단 간 의식이 얼마나 동일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기존연구들이 주장한 장마당세대가 실제세대로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세대위치와 세대의식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세대위치는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고 세대의식은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세대의 의식 특성을 규명하고 그로 인해 장마당세대가 갖는 의미를 조명한 것이 본 논문이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 2.1 북한의 청년 중시론

김정은 정권은 ‘청년세대’를 사회변동이나 체제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당과 국가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장마당세대’는 ‘고마움으로 유도된 충성심’을 간직하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유도된 맹세’를 맹목적으로 되된다[9]. 그래서인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래 북한은 청소년 관련 대회를 연이어 소집하고 청년중시를 국가의 전략적 노선으로 삼았다[10]. 그러면서 통치의 전 기간을 청년사랑으로 일관해 온 김일성 정권과 ‘조선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김일성 사회주

의 청년동맹'으로 전환시킨 김정일 정권의 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1]. 북한이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선봉에 내세우고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힘을 동원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추진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 및 청소년 관련 대회에서 청년중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사회에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비사회주의적 삶이 사회주의적 삶보다 더 내면화되어 있는 청년들의 의식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세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거쳐 해방을 맞이했으며, 혁명의 2세대는 김일성이 키운 청년들로 한국전쟁과 전후복구건설에서 주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천리마운동 및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청년세대와 엄혹한 고난의 행군 및 강행군 시기의 청년들을 혁명의 3·4세대로 보고 있다[12]. 새로운 청년세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중요한 역할이 '조선로동당을 옹호하는 척후대, 익측부대'라고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다[13]. 다시 말해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조선로동당이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적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서 노리는 기본대상은 다름 아닌 새 세대 청년들입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청년세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13]. 북한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청년세대가 북한 당국이 고수하는 전통 가치들을 버리고 당과 국가 즉 김정은 정권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듯 김정은 정권에게 청년세대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세대는 본 연구의 '장마당세대'와 연령코호트가 일치하는 것으로 장마당세대 의식의 특성을 규명하여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 2.2 장마당세대의 세대위치 문제

세대위치는 같은 시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동일 세대를 살아가는 공동 운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7]. 북한의 장마당세대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출생코호트와 '고난의 행군'을 청소년기에 공통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위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14].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게 '장마당세대'라는 용어를 그간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15]. 강원철(2015)은 장마당세대는 북한에서 1980-1990년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시기에 유년·청년기를 겪은 세대로 이들 세대의 나이가 2015년에 15-35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6]. 강동완과 박정란(2014)은 장마당세대는 2013년에 북한에서 20대를 전후한 나이거나, 많게는 30대초·중반인 젊은 세대들로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체계적인 사상학습교육을 받지 못해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세대라고 주장[4]하였는데 역으로 추정하면 1978-1994년생이다. 박인호(2015)는 장마당 세대를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이며, 1990년대에 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자로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생애주기가 비슷하다고 정의하였다[5].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 새롭게 출현한 장마당세대는 세대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마당세대는 북한에서 1980-1990년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며, 이들은 2017년 현재 북한에서 20-30대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시기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통의 운명에 참여한 것으로 하여 동일한 세대위치에 놓인 새로운 세대에게 '장마당세대'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에서 '장마당세대'의 명칭을 차용하고자 한다[5].

그러면서도 기존 연구들이 세대위치로 놓은 '장마당세대'가 경험한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체험' 외에 '공교육의 붕괴'의 공통경험을 세대체험으로 추가하였다. 기성세대도 장마당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의 미배급과 사회주의시스템 붕괴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난의 행군'과 미배급사태라는 공통의 경험을 전자는 성인기에 후자는 청소년기에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마당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위치를 가졌다고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장마당세대는 '고난의 행군'과 미배급사태를 공통으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세대위치가 다르다고 규정하였다.

## 2.3 장마당세대의 세대의식 문제

북한의 장마당세대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특성, 특히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의식을 가진 '새 세대'라는 측

면에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임순희(2006)는 북한의 ‘새 세대’는 종래와 같이 정치·사상보다는 물질적인 이익과 부의 축적에 비중을 두며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에 대한 헌신 등 집단주의 사회 지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6]. 이러한 변화는 새 세대들에게 공식적인 가치지향을 내면화시키는 주요 기제로서 학교교육 및 조직생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내다보았다.

이인정(2007)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지향 변화가 정치적 측면에서 혁명 의식의 약화와 사회정치조직 이탈 현상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확산과 ‘비사회주의적’ 행위 증가로, 규범적 측면에서는 규범적 영향력 약화와 이탈 확산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보았다[2].

이기동(2011)은 ‘고난의 행군’ 세대는 당·국가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증가하지만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친 시장적 행동과 사고가 뚜렷하지만 시장과 계획의 공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이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으나 북한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분명히 추동하고 있다고 보았다[17].

조정아 외(2013)의 연구는 새로운 세대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찾아낸 연구로서 새로운 세대는 물질과 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으며 비정치적인 세대이며, 외부세계에 열려있는 세대라고 하였다[16]. 이와 같은 특성이 당장 북한 사회 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 결정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전망하였다.

김성경(2015)은 세대의식을 의식과 더불어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 영역인 ‘마음’의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청년세대의 정체성과 문화적 실천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18]. 청년층이 ‘사이세대’로서 양가적이고 과도기적인 마음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두 세대를 같은 집단으로 보기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체제의 향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김화순 외(2015)는 북한의 청년층인 ‘시장화 세대’를 다른 세대인 ‘고난의 행군세대’와 ‘배급세대’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화 세대’는 비정치성과 개인주의를 특성으로 하며 개인주의와 개인의 행복추구를 우선시하고 있어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삶에 대한 동경이나 친화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잠재적 변혁의 주체는 급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난의 행군세대’라고 지적한다[19].

최봉대(2015)는 북한 청년층의 정치의식을 중장년층과 비교한 결과 청년층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세대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연령 코호트의 구분을 넘어서서 중장년층과 함께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로운 정치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의한 정치적 정체성의 공유는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주장[20]하여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 체제변화 세력으로서의 ‘새 세대’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세대의 세대의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장마당세대’의 세대의식으로 정치·경제·사회·준법·교육 의식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다. 한 세대의 세대의식은 다른 세대의 의식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대 내에서는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우선 장마당세대의 주요 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의식 특성으로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으로 구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정치 의식, 경제 의식, 사회 의식은 박찬석(2011), 최유정 외(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였다[21-22]. 정치 의식은 4가지 하위구성요인으로 정치 의식이 높을수록 북한당국이 진행하는 정치사회화 교육 및 교양이 체화되어 정권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의식으로 보았다. 정치 의식의 신뢰도 분석 결과, ‘우리식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의식’, ‘주체사상 및 당·국가에 대한 신뢰 의식’, ‘계급 및 반제반미 의식’, ‘수령에 대한 신성 의식’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0.805-0.958로 나

타나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경제의식은 4가지 하위구성요인으로 경제의식이 높을수록 계획경제를 부정하는 반면에 시장 친화적인 의식으로 간주하여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의식과는 반대방향이 있다고 보였다. 경제의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시장경제 의식’, ‘사적영역 의식’, ‘계획경제 의식’, ‘공공재산 의식’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0.819-0.961로 나타나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사회적의식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사회적의식이 높을수록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의식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였다. 사회적의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근로단체, 인민반, 사회주의’, ‘성분 및 계층의식’, ‘사회적 신분 의식’, ‘경제적 신분 의식’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0.810-0.953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준법의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3)의 법의식 실태조사 연구와 최은석과 권영태(2010)의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연구, 윤준영(2014)의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개발되었다 [23-25]. 준법의식이 높을수록 북한의 준법교육이 체화되어 당국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였다. 준법의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폭압기구에 대한 의식’, ‘부패에 대한 의식’, ‘법치에 대한 의식’, ‘일탈에 대한 의식’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0.790-0.904로 나타나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교육의식은 북한주민의 교육 실태에 대한 평가 의식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는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시·군·구역 별로 1개의 학교만을 살리고 기타 학교들은 방기했다[26]. 공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의식은 199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가 2000년대 말에 없어진 제1중학교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27]. 따라서 교육의식이 높을수록 무료교육을 표방하는 체제선진이 내

재화되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교육의식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였다. 교육의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공교육의 차별성’, ‘교육의 정상화 정도’, ‘교육의 평등성’, ‘교육 현실 불일치’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이 0.633-0.884로 나타나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설문지는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민혁(2016)[28]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같이 가설설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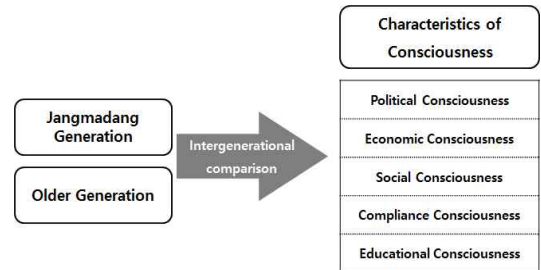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정치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2.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경제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사회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준법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5.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교육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북한에서 새롭게 출현한 장마당세대는 1980-1990년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며, 이들은 2017년 현재 북한에서 20-30대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의 대상인 북한의 20-30대와 그 비교 대상인 40-50

대들을 현실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하기 전 북한의 20-30대와 40-50대였으며,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20-30대와 40-50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010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장마당세대로 일컬어지는 20-30대 102부, 기성세대인 40-50대 98부인 총 200부의 설문지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자들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대면하여 일일이 문항을 체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00부 중 19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9.5%를 기록하였다. 추후 1인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에서 남성이 각각 29.4%(30명), 22.4%(22명)이며 여성이 각각 70.6%(72명), 77.6%(76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집단별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장마당세대에서는 미혼이 67.6%(69명), 기혼이 32.4%(33명)로 미혼이 더 많았고, 기성세대에서는 기혼이 87.8%(86명), 미혼이 12.2%(12명)로 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당세대의 젊은 연령층의 특성을 반영된 것이라 짐작된다.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의 북한에서 살던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 함경북도에 거주했던 비율이 각각 50.0%(51명), 40.8%(4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강도가 각각 31.4%(32명), 30.6%(30명)로 많이 나타났으며 함경남도가 각각 7.8%(8명), 15.3%(15명)로, 평안남도가 각각 4.9%(5명), 4.1%(4명)로 나타나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의 북한 거주지 비율 순서가 일치하였다. 또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의 북한 거주지 성분(토대)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에서 ‘기본계층’이 68.6%(70명), 67.3%(6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복잡계층’이 23.5%(24명), 22.4%(22명)로, ‘핵심계층’이 7.8%(8명), 10.2%(10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N=200

Category		N	%
SEX	male	Jangmadang	30 29.4
		Older	22 22.4
	female	Jangmadang	72 70.6
		Older	76 77.6
Marital Status	Unmarried	Jangmadang	69 67.6
		Older	12 12.2
	Married	Jangmadang	33 32.4
		Older	86 87.8
Residence	Hamgyeongbugdo	Jangmadang	51 50.0
		Older	40 40.8
	Yanggangdo	Jangmadang	32 31.4
		Older	30 30.6
	Hamgyeongnamdo	Jangmadang	8 7.8
		Older	15 15.3
	Pyongan-namdo	Jangmadang	5 4.9
		Older	4 4.1
Hierarchy	Base hierarchy	Jangmadang	70 68.6
		Older	66 67.3
	Complex hierarchy	Jangmadang	24 23.5
		Older	22 22.4
	Core hierarchy	Jangmadang	8 7.8
		Older	10 10.2

#### 4. 연구결과

#####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Political	Economic	Social	Compliance	Educational
Political	1				
Economic	.383**	1			
Social	.518**	.396**	1		
Compliance	-.110	.167*	.421**	1	
Educational	.401**	.191**	.349**	.051	1

\*\*p<.01, \*p<.05

Table 3.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Category	Jangmadang generation (n=102)		Older generation (n=98)		t
	M	SD	M	SD	
Our Style Socialism and Collectivism	2.98	1.072	3.45	0.732	-3.032***
Juche and Trust in the Party / Country	2.87	0.669	3.37	0.860	-3.134***
Class and anti-Semitism	2.69	0.953	3.65	0.726	-6.877***
Divine Consciousness on Reception	2.81	1.063	3.79	1.189	-8.184***

\*\*\**p*<.001

#### 4.2 가설검증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리식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에 대한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032, p<.001$ ). 주체사상 및 당·국가에 대한 신뢰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134, p<.001$ ). 계급 및 반제반미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6.877, p<.001$ ). 수령에 대한 신성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8.184, p<.001$ ).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H1.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정치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장마당세대의 경제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시장경제에 대한 평가 의식에 대해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 집단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4.101, p<.001$ ). 돈·물질에 대한 숭배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 집단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Table 4.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Category	Jangmadang generation (n=102)		Older generation (n=98)		t
	M	SD	M	SD	
Consciousness of Market Economy	3.75	0.578	3.15	0.597	4.101***
Worship of money and material	3.68	0.653	3.07	0.685	4.007***
A negative appraisal of the planned economy	2.88	0.663	3.37	0.738	-3.887***
Responsibility for Public Property Management	3.17	1.774	3.76	1.332	-3.989***

\*\*\**p*<.001

나타났다( $t=4.007, p<.001$ ). 계획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성세대 집단이 장마당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3.887, p<.001$ ). 공공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성세대 집단이 장마당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3.989, p<.001$ ).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H2.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경제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장마당세대의 사회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근로단체 조직 및 인민반에 대한 신뢰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6.445, p<.001$ ). 북한당국이 부여한 성분(토대)에 대한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3.698, p<.001$ ). 사회적 신분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5.471, p<.001$ ). 경제적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에 비해 기성세대의 집단이 평균값이 높

Table 5. Characteristics of social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Category	Jangmadang generation (n=102)		Older generation (n=98)		t
	M	SD	M	SD	
Awareness of the trust of the working group and the people	2.77	1.124	3.87	0.890	-6.445***
Consciousness of ingredients	3.12	0.962	3.64	0.910	-3.698***
Consciousness of Social Status	3.09	1.027	3.82	0.919	-5.471***
A negative appraisal of the economic class	3.60	1.049	2.88	0.930	-7.149***

\*\*\**p*<.001

Table 6. Characteristics of compliance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Category	Jangmadang generation (n=102)		Older generation (n=98)		t
	M	SD	M	SD	
Fear Consciousness of explosive devices	3.13	0.723	4.01	0.945	-6.128***
Negative Consciousness of corruption	3.21	0.714	4.02	0.927	-5.846***
Consciousness of the rule of law	3.06	0.598	4.08	0.757	-7.852***
Negative Consciousness about Deviation	3.19	0.903	3.87	0.612	-5.456***

\*\*\**p*<.001

은 것으로 나타났다( $t=-7.149, p<.001$ ).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H3.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사회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장마당세대의 준법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폭압기구에 대한 공포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폭압기구에 대한 공포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6.128, p<.001$ ).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5.846, p<.001$ ). 법치에 대한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법치에 대한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7.852, p<.001$ ).

Table 7.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consciousnes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Category	Jangmadang generation (n=102)		Older generation (n=98)		t
	M	SD	M	SD	
A negative evaluation of public education discrimination	3.11	0.843	3.65	0.749	-4.008***
Consciousness of the degree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2.85	0.799	3.53	0.805	-6.108***
Consciousness of the equality of school education	3.15	1.402	3.95	0.871	-7.108***
Consciousness of whether education and reality match	2.93	0.869	3.69	0.869	-5.768***

\*\*\**p*<.001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5.456, p<.001$ ). 따라서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인 ‘H4.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준법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장마당세대의 준법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폭압기구에 대한 공포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폭압기구에 대한 공포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6.128, p<.001$ ).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5.846, p<.001$ ). 법치에 대한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법치에 대한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7.852, p<.001$ ).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당세대의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5.456, p<.001$ ). 따라서 본 연구의 다섯 번째 가설인 ‘H5. 북한 장마당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교육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 5. 결론

북한의 장마당세대를 규정하고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세대론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장마당세대가 많은 사회학적 범주들인 계급, 학생, 민족, 젠더 등을 넘어서 실제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장마당 세대가 실제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성립해야 할 조건인 객관적 세대위치와 느슨한 동료의식의 차원에서 세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마당세대의 주요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장마당세대의 교육의식과 준법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당세대는 객관적 세대위치로서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과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기성세대와 다른 장마당세대의 세대위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성세대에 비해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마당세대는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듯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의식을 갖는 집단으로 하나의 세대로 구성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장마당세대는 정치·경제·사회·준법·교육 의식에서 기성세대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기성세대와는 동일한 의식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장마당세대의 의식이 기성세대와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대 내에서는 유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특정한 세대를 구성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장마당세대는 북한사회의 변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장마당세대가 기성세대와 확연하게 다른 사회변동의 주체를 형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로서 교육정책이나 실행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하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방기로 인해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낳기도 하였다. 1980년 이후 출생자가 전체 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2028년 이후 장마당세대의 특성이 북한 사회의 특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세대가 사회변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장마당세대의 의식체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 사회진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현재 남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교육세대나 마찬가지로 장마당세대는 그들 나름의 확고한 경제의식과 사적영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체제에 대한 불신과 낮은 사회의식은 통일에 대비했을 경우 이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마당세대의 낮은 교육수준에 대비하여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바른 정보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거주 중인 장마당 세대와 남한으로 이주한 장마당 세대는 지역적, 국가적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구조의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 References

- [1] J. E. Kim, "Letter from the youth alliance to the participants of the 4th elementary day", *Labor Newspaper*, 2014. 9. 18.
- [2] I. J. Lee, *Value-oriented change in North Korea's 'New Generation'*. Paju: Academic Information of Korea, 2007.
- [3] J. K. Kim,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ia Pacific Institute, 1990.
- [4] D. W. Kang, J. R. Park, "The current state of changes to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Kim Jung-eun regime: With a focus on an in-depth interview investigation with North Korean peopl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Vol.39, No.2 pp.110-151, 2014.
- [5] I. H. Park, "'Jangmadang' The future of the new generation and North Korean regim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yungnam University Far East Research Institute*, 2015. 6. 23.
- [6] S. H. Lim, *Changes and prospects of values in the new gener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7] M. Karl, *The problem of generation*. N. S. Lee ed., Seoul: Book world, 2013.

[8] J. H. Park, "A study on the concept of gener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37, No.3 pp.1-23, 2003.

[9] M. C. Lee, "A study on the North Korean view of the economy & understanding on the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10, No.2 pp.187-213, 2006.

[10] Chosun Labor Party Central Committee, "Kim Il Sung socialist youth alliance ninth conference decision", *Labor Newspaper*, 2016. 8. 28.

[11] Chosun Labor Party Central Committee, "Kim Il Sung socialist youth alliance organizations, workers, young people", *Labor Newspaper*, 2016. 1. 17.

[12] S. K. Kim, The cultural politics of discursive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 :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younger generation' since.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2015.

[13] J. S. Kim, "A study on the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 in the Kim Jong-Un Era",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22, No.2 pp.51-78, 2013.

[14] A. R. Park, *A study on the new generation(sae-sedae) deviation of North Korea*.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of Korea, 2009.

[15] J. A. Jo, Y. J. Jo, E. H. Jo, E. Y. Choi, M. Hung, *The birth of a new generation: Generation experience and analysis of North Korean youth*.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

[16] W. C. Ka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 in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of Jangmadang Generation's Consciousness in North Korea*,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2016.

[17] G. D. Lee, "The consciousness of 'March of Suffering' generation and regime chang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Vol.36, No.2 pp.8-39, 2011.

[18] S. K. Kim, *North Korea's youth and generation problems: Issues and design of this study*. Seoul: Kyungnam University Far East Research Institute, 2015.

[19] W. S. Kim, Y. J. Park, I. A. Hyun, *Power of empowerment of North Korean resident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5.

[20] B. D. Choi, *North Korean youth and political generation problem*. Seoul: Kyungnam University Far East Research Institute, 2015.

[21] C. S. Park, "A study on so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Unification Strategy*, Vol.11, No.1 pp.153-187, 2011.

[22] Y. J. Choi, S. B. Choi, "Generational boundar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attitudes: Preliminary study for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generation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9, No.2 pp.159-201, 2013.  
DOI: <https://doi.org/10.16935/ejss.2013.2.29.005>

[24-23] Support Found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for improving legal opin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Nelpumpus, 2013.

[24] E. S. Choi, Y. T. Kwon, *Legal issues on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Support Found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2010.

[25] J. Y. Yoon, A study on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legal consciousness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2014.

[26] H. S. Shin,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Korean education: From socialist education to subject education",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5, No.1 pp.57-81, 2009.

[27] M. H. Choi,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Jangmadang on the economy and system of North Korea*.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of Korea, 2016.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회원]



- 200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 2001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관심분야>

북한사회, 북한교육, 북한인권